

## 예술은 우리 삶에서 왜 필요한가?

서예원\*

| 오종우(2015). 『예술수업』. 서울: 어크로스.

현대를 살면서 예술의 가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예비 교사들에게 무용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무용의 가치, 예술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일상적 삶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논리적인 접근을 하고 싶던 차였다. 우리 삶에서 왜 무용이, 예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예술과 삶의 관계를 다룬 서적에 관심을 갖고 살피게 되었다. 많은 책들 중에서 오종우의 <예술수업>은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예술의 현실적 가치를 논리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눈에 띄었다.

왜 예술은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이는 것 너머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저자 오종우는 <예술수업>에서 이 모든 것이 예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예술과 현실의 상호관계를 탐구하면서 예술의 인문정신에 주목하고 있다. 예술은 사람들의 고뇌와 고통을 이해하고 인간의 가치를 해석해서 삶의 전망을 밝힘으로써 인문학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 예술은 새로운 생각을 탄생시키는 원동력

인류의 역사에서 예술이 한번이라도 소멸한 적이 없다. 이는 예술이 매우 생명력이 강하고 실용적이라 점을 시사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예술이 새로운 생각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화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술이다. 인간이 자신이 처한 삶과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곧 예술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예술의 성질이다.<sup>1)</sup>

예술은 자유를 지향한다. 자유로우려면 어떠한 질서나 양식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예술은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이면서도 그 패턴에 결코 종속되지 않고 새로운 사고를 탄생케 하는 가장 능동적인 원동력이다.<sup>2)</sup>

세상을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이해하는 일, 기성의 질서에 단순히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체로서

\*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nikia@cje.ac.kr

1) 오종우(2015). 『예술수업』, 서울: 어크로스, p.75.

2) 앞의 책, p.77.

살아가는 일, 바로 이것이 예술의 근본성질이다. 예술은 늘 그러한 일을 한다. 예술이 인류의 역사에서 단 한번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생명력이 여기에 있다.<sup>3)</sup>

## 예술은 사유

저자는 예술이 경직된 생각을 파괴하고 사유의 체계를 넓힌다고 말하고 있다. 예술을 통해 호기심을 품고 세상을 탐구하면서 의미를 얻기 위해 질문하고 새로운 생각을 탄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예술작품이 곧 사유라고 강조한다.

인간이 창조를 한다는 것은 대상을 새롭게 이해한다는 뜻이다. 전에 없던 새로운 물건을 만들 어내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새롭게 이해해서 구성하 여 나오는 것이다. 대상이 새로운 시선으로 파악되어 이전과는 다른 대상으로 거듭나는 것이 창조이다. 과학의 발견 역시 없던 것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것을 뜻한다. 그래서 창조성은 독창성을 뜻한다. 대상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창조되 는 것이다.<sup>4)</sup>

예술은 무언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무엇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술작품을 통 해 새롭게 보고, 새롭게 듣고, 새롭게 느끼며,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잘 보고, 더 잘 듣고, 더 잘 느끼며, 더 잘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sup>5)</sup>

저자는 모든 예술이 원초언어를 사용한다고 이야기 한다. 탄생하는 순간 의미를 부여 받는 언어, 창조 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언어, 그 언어는 형언할 수 없지만 체험할 수 있는 세상을 말해준다. 영화에서 는 그 원초언어를 이미지라고 한다. 2차 언어가 관습에 따라 굴절된 세상이 사람의 인식으로 들어오는 언어라면, 원초언어는 세상을 곧바로 인식하는 언어이다. 그래서 이미지에는 상상력이 포함된 풍부한 해석과 사유가 함유되어 있다. 이미지는 시각적인 영상이 아니라 그것에서 유발되어 올리는 근원적인 사유라는 것이다.

나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다양한 나무들이 떠오른다. 자기가 살아온 배경과 지식에 따라 나 무의 이미지는 모두 달라서 아주 풍요롭다. 그래서 많은 체험은 삶에서 무척 중요하다. 그 사람 의 상상력이 풍부해지니까. 만일 힘들게 지냈다면 그것은 기억을 더 넉넉하게 해주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기억은 옛날이 아니라 현재에 살아 있는 과거로, 미래를 여는 힘이다.<sup>6)</sup>

## 삶을 창조하는 예술

일상은 왜 새롭지 못할까? 저자는 그 이유를 일상이 익숙해지고 첫 시선의 생생함을 잃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진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그것의 의 미를 삭제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일상의 진부함을 벗겨 해주는 것이 여행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3) 앞의 책, p.77.

4) 앞의 책, p.188.

5) 앞의 책, p.189.

6) 앞의 책, p.231.

여행과 예술의 공통점을 말하고 있다.

여행은 가끔은 꼭 필요하다. 시선을 살리기 때문이다. 이국의 낯섦을 즐긴다는 뜻에서만 여행이 필요한 게 아니다. 여행은 원래 살던 곳의 진부한 삶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한다. 누구나 여행지에서 돌아오면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과 그곳의 일상이 새롭게 보이니까. 여행은 당연한 삶을 낯설게 만들어서 생동감을 되살린다. 일상이 되면 삶의 가치마저 잃기 쉽다. 의미를 잃고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처럼 무가치한 나날들이 또 어디 있겠나.<sup>7)</sup>

## 예술적인 삶

마지막으로 저자는 예술과 현실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다. 예술과 현실은 대립하거나 병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은 보고 느낀 바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보고 느끼는 그 자체이다. 어디 먼 곳에서 벌어진 낯선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인 것이다. 이를테면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햄릿이라는 덴마크 왕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안속의 햄릿 이야기이다.

예술적인 삶을 위해서 저자는 다음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마음을 움직였거나 어떤 느낌을 안겨준 예술작품 하나를 가까이 간직한다. 한 장의 그림이나 음악 한 곡, 시나 소설 한편, 영화나 연극도 가능하다. 그리고 왜 마음이 끌렸는지 그 이유를 따져본다. 이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인식능력이 커져가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해석 능력은 진정한 삶을 만들어간다. 그렇게 새서 생긴 지적 능력은 삶의 현실을 보는 눈을 크게 만들고, 세상을 사유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크게 만든다. 이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게 만들고 삶의 질도 달라지게 만든다고 하면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삶에서의 예술의 가치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예술작품을 대하면서 길러진 해석 능력, 그리고 창의성과 상상력은 남아 세상을 읽어내는 시야가 넓어지며, 삶에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도 생기죠.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해석해서 미래를 열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의 최전선에서 탄생한 예술작품이 주는 지식입니다.<sup>8)</sup>

## 치유와 사랑을 위한 예술

오종우가 <예술수업>에서 예술과 삶의 관계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냈다면, 알랭 드 보통은 철학자이자 소설가로서 예술과 삶의 관계를 풀어내고 있어서 흥미롭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알랭 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sup>9)</sup>은 예술을 치유방법이자 사랑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예술이 더 나은 삶, 더 나은 자아로 이끌어준다고 하면서 심리적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일곱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예술은 나쁜 기억의 교정책이 될 수 있다. 예술은 소중한 것과 우리가 찾은 최고의 통찰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매커니즘이며, 그것들에 누

7) 앞의 책, p.304.

8) 앞의 책, p.333.

9) 알랭 드 보통, 존암스트롱, 김한영 역(2013), 『영혼의 미술관』 (서울: 문학동네).

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예술은 희망의 조달자이다. 예술은 즐겁고 유쾌한 것들을 시야에 붙잡아 둔다. 셋째, 예술은 슬픔을 존엄화하는 원천이 된다. 예술은 삶에서 슬픔을 받아들이는 방법과 그러한 슬픔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한다. 넷째, 예술은 정서적 균형을 회복시킨다. 예술은 우리가 가진 좋은 정서적 자질들을 명료하게 만들고, 다양한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본성의 균형을 회복시킨다. 다섯째, 예술은 자기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길잡이이다. 여섯째, 예술은 우리의 경험을 확장시킨다. 예술은 다른 문화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가장 훌륭한 예들을 제공하고, 예술작품과의 교류는 우리 자신과 이 세계에 대한 이해력을 넓혀준다. 일곱째, 예술은 감각을 깨우는 도구이다. 예술을 통해 감수성을 회복하고 옛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그는 예술이 더 잘 사랑할 수 있고, 좋은 연인이 되도록 만든다고 이야기한다. 좋은 연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 말에 귀 기울이는 능력(세부에 주목하는 능력), 인내심, 호기심, 회복력, 관능, 이성 등이 필요하며, 예술작품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수업>이나 <영혼의 미술관>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술을 통해 더 나은 자신과 만나게 되고, 영혼을 치료하고, 더 나은 연인이 될 수 있다. 예술은 우리 삶속에 끊임없이 스며들면서 사유의 체계로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예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일상 삶에서 어떻게 스며들지의 결정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 ■ 참고문헌

---

알랭드보통·존암스트롱(2013). 『영혼의 미술관』, 김한영(역). 서울: 문학동네, 2013.

오종우(2015). 『예술수업』. 서울: 어크로스.